

왜 어떤 기도는 다른 기도들보다 특별한가?

5명의 자녀를 둔 신앙이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께 암을 제거해 낮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나 두 달 뒤에 세상을 떠다. 마약 중독자가 직장을 잃고,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일을 달라고 기도했다. 그런데 이주일 이후 그는 새로운 직장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들은 마치 값 싼 회의적인 영화와 같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실제로 다른 기도들보다 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있는가? 분명히 그렇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엘리야의 이야기에서 좋은 예를 볼 수 있다. 한마디로 엘리야의 기도와 명령은 가뭄을 끝장내기도 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왕상 17:1). 때가 되었을 때 그는 다시 비가 내리도록 기도한다. 무릎 사이에 머리를 두고 계속 7번을 간절히 기도한다. 다른 기도보다 더 효과적인 기도가 존재하는가? 여기 고려해볼 수 있는 3가지가 있다.

1.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방식이 더 낫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사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뜻을 갖고 계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보다 훨씬 훌륭하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아 보일 때도 그러하다. 이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0절 "뜻이 하늘에서 이뤄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뤄지이다."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2. 우리의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선한 것인가

마태복음 7장 9~10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 떡과 생선이라고 생각하면서 구하지만 실상 우리에게 뱀과 돌인 경우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들을 주시진 않는다. 가장 효과적인 답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구하는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알고 계신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지 '아니다,' '기다려라' 2가지로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부인이나 연기는 빠른 응답이 아닌가?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유익을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부인하신다. 다만 우리는 이를 듣고 받아들이지를 꺼려할 뿐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환영과 섬김의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교제의 식탁 예배후 주일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역 / 행사

7월은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우는 삶을 살도록 합니다.

1. 금주는 말씀과 묵상, 기도와 순종, 나눔과 격려를 통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생활의 성숙을 추구하는 주간입니다.
2. 더 풍성한 남은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운동을 이어 갑시다.
3. 여름학기 주일성경공부가 시작됐습니다. 참여하여 영성을 쌓는 훈련으로 삼읍시다.
 요한복음의 7가지 기억들: 장영현 전도사 / 성경인물: 고순제 전도사 / 그림으로 표현하는 성경묵상: 정홍렬 목사
4. 정기 제직회 다음 주일(21)에 있습니다: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사역점검.
5. Oikos 셀 사역 오늘 저녁에 모입니다.
6. 방향: 자녀들이 시간을 지혜롭게 활용하도록 관심과 격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7. 유초등부 교육전도사/교사 청빙과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8. 교우와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9. 7월 교회 일정 : 7월 14일 - 셀모임
 7월 21일 - 정기제직회
 7월 28일 - 설립 4주년 기념 주일/친교

교우 동정 : 최선운/윤정 (한국 방문 중)
 ♥생일 축하♥ 오정은(7/14) 이광호 (7/14) 흥현근(7/18) 구은강 (7/28)

예배와 양육, 말씀과 기도, 교제와 나눔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축복된 교회, 성장하는 섬김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기도제목

1.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회자들의 강건함과 사역을 위해
2. 박진성 집사의 완전한 회복과 최윤정 학생(눈)의 빠른 치유를 위해
3.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정홍렬 목사가 건강(신장기능)을 유지하도록
4. 교우들의 사업이 믿음 안에 청지기의 사명으로 운영, 발전하도록
5. 좋은 English Ministry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
6. 주중 성경연구(소선지서/에스라/느헤미야/부흥강의들)를 위해

예배	주일예배기도	7/7	7/14	7/21	7/28
		구은강집사	정홍렬목사	오정은집사	최내권집사
섬김	금요일예배기도	7/12	7/19	7/26	8/2
		박진성집사	최내권집사	구민집사	최선운집사
이	주일헌금위원	7/7	7/14	7/21	7/28
		유덕하집사/구은강집사	김훈태집사/유동숙집사		
	주일안내위원	7월			
		최내권집사			

말씀노트 Sermon Note

(지난주일 말씀요약)

라합의 결단은? / 여호수아 2:8-14

라합은 어느 편에 설지, 무엇을 할지 선택하고, 결단하며 그대로 살았다. 어떤 위험과 희생도 감수하며, 목표를 이루고 열매 맺을때까지, 최선을 다 했다. 또한 유다지파 살문과 결혼하여 언약 백성이 되었다. 다윗의 고조할머니이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우리는 어떤 변화, 성장, 내려놓음이 필요한가? 쉽지 않기에, 선택과 결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지치지 말고, 주저않지 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교회와 사역, 가정과 성도가 되도록 하자.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 여호수아 3:1-17

요단강 도하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가?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를 살았고, 요단을 건넜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려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 여호수아 3:1-17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요단강 도하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요단을 향한 행군은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첫째,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백성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언약궤는 레위지파의 고핫 자손들이 운반했었지만,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직접 언약궤를 메라고 합니다. 요단강 도하를 위해 언약궤를 메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백성들보다 앞서 가야했습니다. 평상시에 행군할 때, 백성을 앞에서 인도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행렬 가장 중간에 위치했습니다. 하지만, 요단을 향한 행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장 앞에 섰습니다. 이는 불과 구름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언약궤가 앞서 나가고 백성이 따르며 마침내 요단강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강 속으로 발을 내디뎌야 했습니다. 그러자,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추어 상류에 산처럼 쌓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멘 채, 요단강의 한 가운데까지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멈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서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지나간 다음 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입니다. 백성보다 2천 규빗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까이 왔고, 언덕까지 넘치는 강물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단순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순종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들은 이미 충분히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능력을 체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자주 잊으며 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신앙생활을 특별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 풍성히 체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말씀적용과 실천노트

Application Note



“네 영이 잠 못 들 때 내가 밤사에 잡히고 감금하기를 간구하노라”

섬김의 교회

church of servants

847-691-7846 / www.churchofservant.com
600 Deerfield Road, Deerfield, Illinois 60015

치유, 회복, 나눔

July 14, 2019

섬김의 교회는...

- ▶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 ▶ 하나님의 사랑에 빛진 교회의 사람으로, **섬김**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 ▶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향해 쉬지않고 **성장**합니다.
- ▶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한 교회와 가정, 개인의 생활을 **소망**합니다.
- ▶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사역과 삶의 영역에서 세웁니다.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 일 예배 / LORD'S DAY WORSHIP : SUNDAY 11:30 AM
- 주 일 학교 / SUNDAY SCHOOL : SUNDAY 11:00 AM
- 생명의 삶 나눔 / QT SHARING : SUNDAY 10:15 AM
- 금요찬양예배 / FRIDAY SERVICES : FRIDAY 8:00 PM
- 새벽경건회 / EARLY MORNING DEVOTIONS : TUESDAY~FRIDAY 6:00 AM
SATURDAY 7:00 AM
- WOW / WOMEN OF WORSHIP : SATURDAY 11:00 AM
- 성경 공부 / BIBLE STUDIES : SUNDAY 1:30 PM
WEDNESDAY 7:00 PM
- 일대일 제자 훈련 / DISCIPLESHIP CLASSES : WEDNESDAY 7:30 PM

교회위치 (Our Location)

60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www.churchofservant.com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사는 달
믿음성장 / 신앙생활 성숙 주간

꿈이 있는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어제보다 오늘 더 행복한 교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14-15



포화상태일 때
당신이 들릴 때
이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약할지라도
당신 안의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